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출 39:22-43

2021 년 10 월 29 일

1.

오늘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2-31 절에서는 제사장의 의복 중 겹옷과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말씀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 절이하에서는 성막이 완성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되었는지 모세가 다시 한번 살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 절에서 26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39:22-26

22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23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24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놓고

25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26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옷은 눈으로 보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목적, 즉 청각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게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죽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면 살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성소 안에서 죽은 것이어서 이럴 경우 백성들이 그 몸에 묶인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고 나아갈 때마다 누구보다 비장한 마음으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잡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게 죄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갑니까? 대제사장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저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모임에 나갈 때와 별다른 차이 없이 나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7 절 입니다.

27 절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베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 속옷이 흰색의 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8 절에서는 가는 베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이 속바지는 제사장들이 높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 반바지의 일종입니다.

제사장의 속옷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이 되어 있고, 29 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지시하신 대로 제작되었다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제작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

30 절과 31 절은 거룩한 패에 관해 말씀합니다.

30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1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듯이 문구를 써넣는데 그 내용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청색 끈으로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기게 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해야 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보혈로 씻은 자가 정결케 되고 성결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31 절 말씀을 통해 예배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옷을 갖춰 입고서도 행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아닌지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예복을 갖춰 입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준비됨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예복을 갖춰 입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죄 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마음에 부착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32-43 절의 핵심은 모세가 성막의 모든 제작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입니다.

먼저 32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충실히 성막의 모든 물품을 제작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32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 주었던 반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 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막을 '성막 곧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을 호칭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드러낼 때에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수 있는 특권입니다.

33-41 절에서는 제작된 모든 물품을 상세히 열거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세히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한 반복이라기보다는 꼼꼼한 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겁니다.

모세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이 나가는 도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막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31 절, 32 절 그리고 43 절을 보니, 공통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막의 완성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순종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막, 성전, 교회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순종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건축한 성막이기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43 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완성된 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모세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원문상에는 모세가 감탄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봐라!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입니다.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에 의해 완성된 성막,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구나' 이같은 감격과 감탄이 포함된 구절입니다. 순종에 대한 감격, 그리고 순종에 대한 감사,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징이라면,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던 그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4.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뺏속까지 죄인이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축복이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순종의 완성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